

보도자료

게시일

제 목

2004-08-30 한·아세안 FTA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결과

문의(자유무역협정2과) : 2100-7620~2
2004. 8. 29 (일)

발표일시 :

제 목 : 한·아세안 FTA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결과

1.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한·아세안 FTA 전문가 공동연구 제5차 회의가 8.27(금)~28(토)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11월 한·아세안 정상회의에 상정될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였다.
2. 이번 회의에는 우리부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담당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, 농림부, 산자부 등 관계부처 대표, 민간 자문위원 등 12명이 참가하였으며, 아세안측에서는 10개 회원국 대표와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등 25명이 참가하였다.
3. 전문가 공동연구 회의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·아세안간 경제자유화가 상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, 이를 위해 관세 철폐(민감품목 제외),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. 따라서, 전문가 공동연구는 양측 정상에게 한·아세안간 FTA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상정기로 결정하였다.
4. 동 보고서는 9월 한·아세안 경제장관회의를 거쳐, 11월에 개최될 한·아세안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며, 양측 정상들은 동 보고서에 기초하여 FTA 공식협상 개시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
5. 한편, 정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개시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업계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(8.4), FTA 민간자문회의(8.26)를 개최한 바 있으며, 앞으로 FTA추진위원회·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

외교통상부대변인